

## 문학 작품의 다언어(multilingualism) 번역 전략: 『제인 에어』의 프랑스어를 중심으로\*

원 은 하\*\* · 진 실 로  
(경운대 · 세종대)

### 1. 서론

문학텍스트에 나타나는 외국어 등의 다언어적 요소들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선택된 문학적 장치로, 이렇게 주언어(main language)이외의 언어가 혼용된 문학텍스트를 “다언어 문학(literary multilingualism)”이라고 부른다(Rossich 2018).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다언어는 다양한 전략으로 번역할 수 있으므로 텍스트에 사용된 다언어의 문학적 기능을 파악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다언어적 속성을 지닌 문학텍스트와 그 번역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은 주로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다언어 사용으로 성취되는 문학적 효과와 이를 반영하는 번역 전략 관

점에서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문학텍스트는 대표적인 표현중심 텍스트(Reiss 2000)로 작가의 의도와 심미적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문학 언어로서 ‘다언어 사용(multilingualism)’의 번역전략을 탐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문학텍스트에 나타나는 다언어적 요소의 문학적 기능과 번역전략을 논의하기 위하여 우선 ‘다언어 사용’의 개념을 정리하고 다언어 문학의 선행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로시츠(Rossich)가 제시한 다언어 문학의 형식적 분류를 소개하며, 다언어적 요소의 문학적 기능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살펴본다. 사례분석을 위한 텍스트로는 샬롯 브론테(Charlotte Brontë)의 『제인 에어』(*Jane Eyre*, 1847)와 한국어 번역본 5종을 선정하였다. 이 작품은 국내외에서 명성이 높고, 텍스트 내에 프랑스어나 라틴어 등 다언어적 요소가 풍부하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외국어 중 프랑스어를 중심으로 문학적 기능 및 역할을 기술하고, 번역전략을 ‘외국어 중심 전략’, ‘목표어 중심 전략’, 그리고 ‘절충적 전략’이라는 세 범주로 나누어 실제 사용된 번역 전략들을 분석하면서 각 전략이 함의하는 바를 고찰해본다.

### 2. 연구 배경 및 방법

#### 2.1 ‘다언어 사용(multilingualism)’의 개념과 번역 연구

다양한 언어가 혼재하는 개인, 텍스트, 사회 현상을 ‘multilingualism’, 즉 ‘다언어 사용’이라고 부르며(Grutman 2009: 182), 이는 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교육학, 언어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주제이다(Cenoz 2013: 4-5). 이 용어는 한 가지의 정의로 설명되기 힘든 측면이 있는데, ‘다언어 사용’의 배경이 복잡하고 연구자들의 이념과 목적성이 다양하기 때문이다(Kemp 2009). 일반적으로 언어의 개수에 따라서 두 개 언어 사용은 ‘이중 언어 사용(bilingualism)’으로, 셋 이상의 언어 사용은 ‘다언어 사용(multilingualism)’으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으나, 다언어 사용을 보다 상위 개념으로 보고 있으므로(Aronin and Singleton 2012; Sridhar 1996) 단일 언어 사용의 상대적인 개념으

\* 본 연구는 2020년도 경운대학교 교내 학술비의 지원을 받은 결과물임.

\*\* 주저자, 교신저자

로는 ‘다언어 사용’이 더 적절할 것이다. 한편 문학 분야에서는 이 용어가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단일한 문학 언어(Rossich 2018: 47)”의 상대되는 개념으로 ‘다언어’라는 용어가 선택되고 있으며 이 때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언어의 개수에 따라서 용어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국가를 중심으로 개념화된 언어의 정의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언어 내 다양한 변이형(variation)들과 언어(language)와의 경계가 모호함을 지적하기도 한다(Delabastita and Grutman 2005: 15-16).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인 에어』에 사용된 프랑스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에 대하여 과연 이를 ‘다언어 사용’의 타당한 예로 볼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본고의 ‘다언어’는 실제 ‘이중 언어’ 구사자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문학연구라는 틀 내에서 단일 언어 문학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둔다.

다언어 문학(literary multilingualism)의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활발해지고는 있으나 그 자체가 최근의 현상은 아니다. 중세 영국만 해도 많은 언어가 사용되었고 중세 작가들과 독자들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민족주의와 단일국가라는 이념이 강화되면서 다언어적 글쓰기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다가(Meylaerts and Serban 2014), 20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문학과 문화연구 분야에서 단일 언어의 확고한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동성, 노마디즘, 혼종성, 크레올화에 대한 학술적 담화로 ‘다언어 사용’, 즉 언어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Meylaerts 2006: 2).

다언어 사회에서는 공동체 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에 통역과 번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그러한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는 각종 구어/문어텍스트에도 여러 언어가 등장하므로, 다언어 사용 현상은 번역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다언어 사용’이 최근 문학번역, 영상번역, 현지화, 언어관리, 공동체 통역, 언어정책 등의 분야에서 번역학계의 관심을 받아온 것은(Meylaerts 2010: 227)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문화번역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대하면서 다언어적 속성을 지닌 문학텍스트의 언어적 혼종성(hybridity)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고찰<sup>1)</sup>과 더불어, 기존의 언어적 등가라는 담론

을 넘어서서 번역자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Hermans 2010: 198, 한미애와 조의연 2017: 242-43에서 재인용).

한편 라이너 그루트만(Reinier Grutman)은 다언어적 속성을 가진 문학을 ‘이(異)언어문학(heterolingualism)’이라고 칭하고, 문학 및 문학번역에 나타나는 언어 다양성의 양상과 그 이념적 기능을 탐구하고 있다. 그는 번역서 내의 외국어에 대한 용인성의 정도가 언어간, 또는 국가간 문학들 사이의 힘의 불균형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서로 다른 권위와 지위를 가진 문학들이 접촉하는 경우에 번역은 그 속성이 비대칭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Grutman 2006: 23). 번역은 불평등한 힘의 관계를 유지하는 문화 사이의 점점이므로 번역에서 ‘이(異)언어성’의 정도는 상징적 중요성을 지니며, 다문화 맥락에서 정체성의 형성과 문화 역동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Meylaerts 2006: 5). 이러한 맥락에서 번역가의 전략 선택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간의 경쟁 관계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조정에 따른 결과물로 해석된다.

## 2.2 다언어 문학의 형식과 기능

다언어적 속성이 있는 문학텍스트는 ‘이념과 윤리’라는 관점 외에 다언어가 나타나는 ‘형식과 기능’에 집중하여 기술적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로시츠는 다언어 문학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을 ‘언어교차(alternance of languages)’, ‘언어혼재(confusion of languages)’, ‘언어혼합(mix of languages)’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Rossich 2018: 57-62). 첫째, ‘언어교차’는 여러 언어가 번갈아 사용되는 기법인데, 현실 세계와 유사해보이도록 혹은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서 등 수사적 목적으로 활용된다. 둘째, ‘언어혼재’는 둘 이상의 개별적인 언어로 텍스트를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 유럽에서 라틴어와 기타 언어가 병치되어 작성된 텍스트가 그 예이다. 셋째, ‘언어혼합’은 기존의 언어들 섞어서 새로운 변종을 만들거나, 상상으로 만들어낸 언어를 말한다. 위 세 가지 중 현대 문학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형태는 언어교차, 즉 하나의 텍스트 내에 여러 언어가 번갈아 사용되는 형식으로 본고의 연구 대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텍스트에서 여러 언어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문학적 효과는 무엇일까? 텔라바스티타와 그루트만은 다언어 사용과 언어간 상황들이 ‘캐릭터

1) 관련 국내 연구로는 김기영(2016), 선영아(2015), 이상빈(2014), 한미애와 조의연(2017)을 참고할 것.

구성', '서사적 갈등', '공간적 대립', '모방', 그리고 '극적 긴장감을 조절'하는 등 기본적 서사 원칙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한다(Delabastita and Grutman 2005: 24).

가드너-클로로스과 웨스턴(Gardner-Chloros and Weston 2015: 186)은 문학 내에서 외국어의 사용이 작가에게 모국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면서, 다언어 사용의 기능으로 '다양한 캐릭터의 묘사', '텍스트의 구분', '커뮤니티를 특징짓는 혼합된 발화의 재현', '다양한 사용역이나 암시 제공', '희극적인 효과 창출'을 꼽는다.

카노니카(Canonica)는 베가(Lope de Vega)의 희곡을 분석하면서 다언어의 기능을 '희극적 기능', '풍자적 기능'과, 외국인인 등장인물이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등 현실 세계를 반영한 '사실적 기능', 외국과 외국 문화 등을 떠올리게 하는 '환기적 기능', 그리고 극이 전개되도록 이끄는 '서사적 기능'의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Rossich 2018: 56에서 재인용).

문학에 사용된 다언어의 기능은 이처럼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분류되지만 아직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앞서 다언어 문학의 형식을 세 가지로 구분했던 로시츠 역시 생산적인 연구를 위하여 잠정적인 분류를 시도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57). 또한 연구자들이 구분한 문학적 기능들이 항상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기능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위에서 소개한 연구자들의 분류를 종합해보면, 문학작품에 사용된 다언어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첫째, 캐릭터와 배경의 사실성 증가이다. 등장 인물이 외국어를 사용하면 인물의 특성과 배경 등에 구체성이 부여되며, 결과적으로 보다 현장감있고 생동감있는 인물이 창조된다. 둘째, 이렇게 형성된 사실성을 배경으로, 외국어 표현은 작가가 의도하는 다양한 환기적 의미를 창출할 수 있다. 등장인물이 사용하는 외국어 표현, 혹은 작중 화자가 사용하는 외국어 표현은 결국 작가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문학적 장치이므로 작품의 주제에 대한 작가의 태도나 어조를 암시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희극적, 또는 풍자적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다. 셋째, 외국어 표현은 직간접적으로 서사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인물들이 사용하는 외국어는 작품 속에서 주언어(main language)와 부딪히면서 긴장감을 형성하고 이는 인물간의 갈등이나 대립을 촉발시키거나 혹은 와해시키면서 이야기 전개에 일정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2.3 텍스트 선정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텍스트에 나타나는 다언어적 요소의 문학적 기능과 번역전략을 고찰하기 위해 *Jane Eyre*(1847)와 한국어 번역본 5종<sup>2)</sup>을 선정하였다. 국내에서 가장 친숙하고 대중적 인기가 높은 영미문학 중 하나인 이 작품은 영어로 집필되었으나 프랑스어와 라틴어, 독일어 등의 외국어도 자주 등장한다. 그 중 출현 빈도와 분량이 가장 두드러진 외국어는 프랑스어로, 주인공인 제인 에어의 성장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배경적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인 에어』에 사용된 프랑스어의 문학적 기능을 중심으로, 인물과 배경에 현실감을 더해주는 '사실적 효과'와 작가의 어조를 드러내는 '환기적 효과'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번역본 선정을 위해 실제 유통되고 있는 1990~2000년대의 다양한 번역본들을 두루 살펴본 결과, 연대별로 어떤 특정 번역 전략이 우세하거나 열세하는 등의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프랑스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델의 발화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번역한 번역서 5종을 선정함으로써 최대한 다양한 전략을 논의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 사례 분석을 위해서는 원문에서 프랑스어가 중요하게 사용된 사례들에 대해 5종의 번역본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번역 전략들을 검토하고, 원문의 효과에 대한 중요성의 인지 여부 및 원문의 효과를 재현하기 위하여 사용한 번역 전략이 함의하는 바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3. 『제인 에어』에 등장하는 외국어의 번역 전략

### 3.1 작품 소개

1847년 출간된 샬럿 브론테(Charlotte Brontë)의 『제인 에어』는 불우한 환경에서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여주인공 제인 에어의 성장을 다룬

2) 분석대상인 TT는 대교베텔스만(2007), 민음사(2004), 시공사(2014), 임프린트 펍킨 클래식 코리아(2010), 청목사(1994)의 총 5편임.

작품으로, 생생한 내면 묘사와 독자에게 직접 말하는 듯한 서사, 역동적인 스토리 전개로 발표 즉시 호평과 판사를 받았으나 동시에 비기독교적이고 자유분방한 여성성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했다(Davies 2006, Brontë 1987/2006: viii에서 인용). 이 소설은 현재에도 여전히 인기있는 고전이며 대영제국의 사회상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페미니즘, 포스트식민주의, 트리컨티넨탈리즘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

가난한 고아인 제인은 당시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약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녀는 타고난 지성으로 기숙학교에서 숙녀가 될 자질들(자수, 그림, 프랑스어)을 익혔으며 그 결과 부유한 지주 로체스터 집안의 가정교사로 고용된다. 제인은 로체스터와 사랑에 빠지면서 결혼을 통한 신분상승의 기회를 얻게 되지만 로체스터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의 정부가 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한다. 이후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오다가 사촌 존 리버스에게도 청혼을 받지만 그가 인도 선교활동의 파트너로서 그녀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사랑 없는 결혼을 거부하고, 결국 불구가 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던 로체스터를 찾아가게 된다. 이 무렵 제인은 존재를 몰랐던 친척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유산을 상속받았기에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으며, 로체스터의 아내가 사고로 사망하여 로체스터와도 적법하게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제인 자신의 힘으로 원하던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게 되는 로맨스 소설다운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외국어의 관점에서 『제인 에어』를 해석하기 위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자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은 광대한 식민지 건설을 통한 자본주의의 팽창과 차티스트 운동 등으로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역동적이며 국제적인 장소였다. 또한 『제인 에어』는 “노예제, 제국 경영, 문명화 사명 등을 포함한 당대의 역사적·식민적 맥락”을 기저에 품고 있기도 하다(박종성 2009: 87). 일례로, 로체스터의 아내인 버사 메이슨은 서아프리카의 마테이라 출신으로 로체스터 가문과의 정략결혼의 희생자이며, 로체스터가 맡아 기르는 프랑스 출신의 아델은 로체스터의 정부(情婦)의 사생아이고, 제인 에어의 친척인 존 리버스는 소설 후반부에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로 선교 활동을 떠난다. 당시 영국의 중상류층은 프랑스어가 필수 교양이었으므로, 작품 곳곳에 프랑스어가 출현하며, 고전과 성경 등의 문학적 인용도 풍부하여 가끔씩

라틴어와 독일어도 등장하는 등, 현대 독자들에게 『제인 에어』는 단순한 로맨스 소설을 넘어서 다언어적 요소가 산재한 시대상을 체험할 수 있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 3.2 『제인 에어』에 사용된 외국어의 문학적 효과

소설이 출간되던 1800년대는 유럽의 제국주의가 절정을 이루었던 시기로 영국과 유럽대륙의 교류는 일반적이었고 영국의 상류층은 프랑스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인이 가정교사로 머무르게 되는 로체스터 집안의 사람들, 그리고 그와 교류하는 인사들이 프랑스어를 섞어서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구성된 텍스트는 일차적으로 극의 배경이 되는 시대와 공간을 비교적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텍스트에 등장하는 프랑스어는 이성과 열정, 반항과 순응이라는 이분법적 가치 사이에서 고뇌하고 성장하는 제인 에어의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문학적 장치이다. 따라서 텍스트에 등장하는 프랑스어는 인물과 배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는 것 이상의 환기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엘스(Eells 2013: 2-5)는 작품에 등장하는 프랑스어의 효과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프랑스어는 젠더 이슈와 여성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냉대하던 외숙모를 떠나 로우드 기숙학교에 입학한 제인에게 프랑스어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이자, 교육받은 숙녀로 성장한 성취의 표식이며, 프랑스어 실력 덕분에 로체스터 가의 가정교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3). 둘째로 프랑스어는 인물의 감정을 제어하고 사회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가면의 이미지로도 활용된다. 로체스터는 제인과의 대화에서, 세속적이고 부도덕하여 대화의 화제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표현들을 프랑스어로 말함으로써 영국식 예의범절의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5). 셋째로, 작품 속에 사용된 프랑스어는 열정, 욕망, 걸치레라는 속성을 환기시키는데, 이러한 이미지들은 이성, 순응, 실용이라는 빅토리아식 가치관과 대립 구도를 이루게 된다. 제인은 이 대립되는 가치관 사이에서의 중용을 통해(8)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한다. 이렇듯 주요 등장인물들이 사용하는 프랑스어는

기본적으로 시대적 배경의 사실성을 구축하는 한편, 영국적인 가치와의 대조적인 분위기를 환기시켜 주인공의 비판적 성찰을 가능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인으로 성장하는 제인의 서사가 완성되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3.3 외국어의 문학적 효과에 따른 번역 전략

원문에 사용된 외국어의 번역 전략은 이론적으로 볼 때, 외국어 중심 전략, 목표어 중심 전략, 그리고 절충적 전략의 세 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다. 외국어 중심 전략은 외국어만 본문의 전면에 등장하는 방식으로, 외국어는 고유의 철자대로, 또는 목표어 음차로 표기되는 반면, 목표어 중심 전략은 외국어를 목표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외국어의 흔적을 지우는 전략이다. 절충적 전략은 목표어와 외국어가 병기되는 방식으로, 외국어 표현이 제시되고 이어서 괄호 안에(혹은 각주 등으로) 목표어 번역이 함께 제시되거나, 혹은 그 반대로 목표어 번역이 먼저 제시되고 괄호 안에(혹은 각주 등으로) 외국어 표현이 함께 제시되는 전략이다. 『제인 에어』의 번역본 5종을 분석한 결과 주로 다양한 방식의 절충적 전략이 선호되었으며 목표어 중심 전략이 사용된 것도 있었으나 외국어 중심 전략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한편 『제인 에어』에 사용된 외국어의 문학적 효과는 주로 ‘사실적 효과’와 ‘환기적 효과’에 집중되어 있다. 이 두 효과들은 중첩되고 쌓이면서 제인의 성장이라는 서사 전개에 기여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서사적 효과’를 창출하는 수준으로 프랑스어가 활용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외국어의 문학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이 작품은 두 가지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첫째, 각각의 효과는 독립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표면적으로 확보된 사실성의 이면에서 환기되는 의미가 나타나는 식으로 서로 이어진다. 둘째, 주요 캐릭터들에 따라 외국어가 환기하는 효과가 다양하여 아델, 로체스터, 제인이 사용하는 프랑스어가 각각 서로 다른 의미를 환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분석에서는 각 캐릭터별로 ‘사실적 효과’와 ‘환기적 효과’가 두드러진 예문을 중심으로 번역전략들이 원문의 효과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 3.3.1 아델

작품 속에서 프랑스어의 분량이 가장 많은 인물인 아델은 로체스터의 방탕한 연인이었던 셸린드의 딸이고, 프랑스 출신으로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아델과 제인의 대화는 주로 프랑스어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는 캐릭터에 사실성을 부여한다. 한편 로체스터는 아델을 볼 때 파리에서 경험했던 방탕한 연애를 생각하게 되고,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아델의 묘사는 외모와 선물에 집착하는 모습이 주를 이룬다. 엄격한 예절 교육을 받은 제인은 아델을 소양과 장점이 없는 아이(“My pupil was a lively child, who had been spoilt and indulged, and ... no great talents, no marked traits of character...” 128<sup>3)</sup>)로 묘사한다. 따라서 아델의 프랑스어는 캐릭터의 출신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무절제와 방종, 겉치레를 연상시키게 된다. ST1은 아델이 선물과 의상에 대하여 언급하는 장면이다.

#### ST1

- a. ‘Est-ce que ma robe va bien?’ cried she, bounding forward; ‘et mes souliers? et mes bas? Tenez, je crios que je vais danser!’ (163)
- b. ‘Est-ce que je ne puis pas prendre une seule de ces fleurs magnifiques, mademoiselle? Seulement pour completer ma toilette.’ (198)

아델은 영국에 오기 전 프랑스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낼 때 어른들에게 잘 보이고 재롱을 떨어 칭찬 받는 일에 익숙해있기 때문에 로체스터의 관심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그녀는 (a)에서처럼 자신이 입은 의상이 예쁜지 로체스터에게 확인받으려 하고 언제 로체스터가 자기를 부를지 모른다면 (b)와 같이 자신의 의상을 완성하는 겉치레에 골몰해있다. 아델의 외모와 옷에 대한 집착, 로체스터의 애정을 갈구하는 행동들은, 성실함과 검소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인에게는 부적절한 태도로 여겨진다. ST1은 단순한 인사나 감탄문의 수준을 넘어서는 제법 긴 문장들로, 맥락상 내용을 아는 것이 장면 이해에 도움이 되므로 이 문장들은 한국어로 번역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a)를 중심으로 5종의 번역본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3) 본고에 인용된 등장인물의 대사는 모두 참고문헌 <분석텍스트>의 ST가 그 출처이다.

〈표 1〉 아델이 사용하는 프랑스어 번역 비교

| 구분  | 번역문  |
|-----|--|
| TT1 | “Est-ce ma robe va bien(이 옷 잘 어울려요?)” 그녀가 앞으로 뛰어오며 소리쳤다. “et mes souliers? et mes bas? Tenex, je crois que je vais danser(신발은 어때요? 양말은 어울려요? 제가 춤을 춰볼까요?)” (1권, 242) |
| TT2 | “에스크 마 로브 바 비앵?(제 옷 잘 어울리나요?)” 아델이 앞으로 뛰어나오며 큰 소리로 물었다. “에 메 솔리에?(제 신발은요?) 에 메 바?(그리고 제 스타킹은요?) 트네, 주 크루아 주 베 당세!(잘 봐요, 춤을 출 것 같으니까요!)” (1권, 274)                    |
| TT3 | 「이 옷 내게 잘 맞아요?」(Est-ce que ma robe va bien?) 하고 그 애는 뛰어오며 소리쳤다. 「구두는 어때요? 양말은? 나 잠깐만 춤출래요!」(et mes souliers? et mes bas? Tenex, je crois que je vais danser!) (164)  |
| TT4 | “이 옷 어울려요? 신발은요? 양말은요? 잠깐만, 지금부터 춤을 출게요!” (프랑스어 원문을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제공, 259)   |
| TT5 | “이 옷 잘 맞아요? 신은 어때요? 양말은? 잠깐, 내 춤을 추어 보일 테니까요.” (상권, 254)   |

〈표 1〉에서 보듯이, 프랑스어만 표기된 외국어 중심 전략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대체로 절충적 전략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사되어 있다. 우선 TT1과 TT2는 프랑스어를 먼저 내세우고 괄호 안에 한국어 번역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번역 본들은 프랑스어가 매우 강하게 부각되지만 분량도 길고 다소 산만해 보이는 단점이 있다. TT3과 TT4는 한국어를 먼저 내세우고 프랑스어를 괄호 안, 또는 각주로 제공하고 있다. 이때는 한국어 문구에 더 집중하게 되고 독자들은 프랑스어를 삽입된 추가정보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편 목표어 중심 전략을 구사하는 TT5에서는 프랑스어를 제거하고 한국어로만 번역하였다. 이 경우 아델이 프랑스 출신으로 아직 영어가 익숙하지 않음을 표현하는 원문의 ‘사실적 효과’가 번역문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대화 내용만으로도 아델의 성격을 짐작할 수는 있으나 아델의 무절제하고 걸치레에 치중하는 성격을 프랑스와 연결시키는 맥락이 사라지면서 ‘환기적 효과’도 사라질 위험이 있다.

### 3.3.2 로체스터

빅토리아시대 영국의 지주계급인 로체스터에게 프랑스는 자신의 미친 아내가 갇혀있는 집을 떠나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현실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이다. 그러나 그 자유라는 것은 불륜에 불과하며 결국 배신으로 끝나

게 된다. 당대 지주계급으로서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것이 기본적인 소양이긴 해도 그가 극중에서 프랑스어를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제인에게 파리에서 있었던 자신의 실패한 연애담을 말하는 장면에서는 다양한 프랑스 단어를 구사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적 효과와 더불어 다양한 의미를 환기시킨다.

우선 로체스터가 회상하는 과거 연애 사건의 발생 장소가 파리에므로 그곳의 건축물, 마차 등을 언급할 때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것은 마치 그 장소에 있는 것 같은 사실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한편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내용을 언급할 때는 프랑스어를 구사하면서 거리두기를 하며 신사다움을 애써 유지하려고 한다. ST2는 그 대화의 일부를 등장하는 순서대로 발췌한 것으로, (c)와 (d)는 제인이 로체스터의 말을 옮긴 간접화법이고, 나머지는 로체스터가 직접 말한 것이다.

ST24)

- c. ...he had once cherished what he called a ‘grande passion’.
- d. ...she preferred his ‘taille d’athlète’ to the elegance of the Apollo Belvidere.
- e. ...gave her ... servants a carriage, cashmeres, diamonds, dentelles, etc.
- f. ...I was croquant-(overlook the barbarism)-croquant chocolate comfits,
- g. I was about to murmur “Mon ange”...
- h. ...that was a hatted head which now passed under the arched porte cochère of the hotel.
- i. ...and I knew him for a young roué of a vicomte...
- j. ...what she called my “beauté mâle”... (165-69)

위 대화는 파리에서 있었던 로체스터와 셸린느의 격정적인 연애(“a grande passion”)에 관한 것으로, 당시 연인이던 셸린느가 자신의 남성다움(“taille d’athlète”, “beauté mâle”) 반했다고 믿고서, 로체스터는 하인, 보석, 마차, 값비싼 옷(“dentelles”) 등을 제공하며 그녀를 보살핀다. 로체스터는 어느 날 호텔 숙소에서 자신의 천사(“Mon ange”)를 기다리다가 호텔 입구(“porte cochère”)로 그녀와 낯선 남자가 들어오는 것을 목격한다. 그 남자는 사교계에서 유명한 난

4) ST2의 이탤릭체는 원문 표기 그대로이며, 밑줄은 필자가 표기한 것이다.

봉꾼(“roué”)으로 로체스터는 두 사람이 자신의 외모를 조롱하는 것까지 숨어서 듣게 되면서 체면과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는다. 예문 (f)에서 보듯이, 그는 뭔가를 씹어 먹는 행위를 프랑스어(“croquant”)로 말한 뒤 이 표현이 ‘야만스럽다’(“overlook the barbarism”)면서 양해를 구하는데, 이 때 ‘야만스럽다’고 한 것은 일차적으로 로체스터의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행위가 프랑스어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도 프랑스어로 전달되는 ‘환기적 효과’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c-j)로 이어지는 그의 대화에 사용된 프랑스어는 파리라는 장소의 현장감을 살리는 ‘사실적 효과’를 주는 동시에 그의 연애가 부도덕하고 방탕한 경험인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환기적 효과’까지 준다. 이렇듯 빅토리아 시대의 문학 작품 속에서는, 대화 중에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외설적이거나 무례한 내용을 프랑스어로 표현하기도 했는데(Lefevre 1992: 30), 이러한 완곡어법을 통해 로체스터는 신사로서의 체면을 잃지 않고 제인과 이야기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로체스터가 사용하는 프랑스어의 환기적 기능이 번역에 반영되었는지는 <표 2>를 통해 비교해보겠다.

<표 2> 로체스터가 사용하는 프랑스어 번역 비교

| 구분  | 번역문   |
|-----|---|
| TT1 | c. ...자신이 한때 ‘대단한 정열’을 품었던...<br>d. ...그녀가 아폴론의 우아함보다 그의 ‘ <u>늘름한 체격</u> ’을 더 좋아한다고 믿었다.<br>e. ...하인, 마차, 캐시미어, <u>다이아몬드</u> , <u>값비싼 레이스</u> 등을 완벽하게 갖춰 주었지.<br>f. ... <u>와드득와드득</u> (듣기 거부하더라도 용서하시오) 초콜릿 과자를 깨물어 먹거나 ...<br>g. ...‘ <u>나의 천사</u> ’라고 부르려던 참이었소...<br>h. ... <u>아치형의 호텔 입구</u> 로 들어서는 것은 모자 쓴 머리였소.<br>i. ... 나는 그가 <u>난봉꾼</u> 으로 소문난 젊은 자작이라는 걸 알았소.<br>j. ...나를 자신의 ‘ <u>아름다운 남자</u> ’라고 부르며 열렬하게 감탄하는 게 그녀의 습관이었는데 말이오... (1권, 244-50) |
| TT2 | c. ...한때 자신이 “ <u>격정적인 열정</u> ”(그의 말을 빌자면)을 품었던...<br>d. ...그녀가 아폴로 벨비디어가 지닌 우아한 아름다움보다 자신의 ‘ <u>운동선수 같은 체격</u> ’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했다...<br>e. 그녀에게 하인들과 마차, 캐시미어 슴, <u>다이아몬드 보석</u> , <u>딩텔</u> , 기타 등... 주었소.<br>f. 그래서 그 초콜릿 사탕을 ‘ <u>크로강 크로강(오도독오도독)</u> ’이런 무례한 표  |

|     |   |
|-----|---|
|     | 현을 너그럽게 봐주시오.-씹어 먹거나...<br>g. ...‘ <u>몽 앙주(나의 천사)</u> ’라고 말하려고 했소.<br>h. ...그리고 호텔의 아치 모양 ‘ <u>포트트 코셰르(마차 출입문)</u> ’를 들어온 그 사람은 머리에 중절모를 쓰고 있었소.<br>i. ... 나는 그가 젊은 <u>바람둥이</u> 자작이란 걸 바로 알아챘소.<br>j. ...‘ <u>넛을 잃을 정도로 멋있다</u> ’는 표현까지 써가며..... (1권, 276-82)   |
| TT4 | c. ...로체스터 씨는 한때 셀린에 대해 스스로 ‘ <u>그랑 파송</u> ’이라는 것을 품고 있었다고 했다. (*각주: 프랑스어로 ‘크나큰 열정’이라는 뜻).<br>d. ...셀린이 아폴론의 벨베데레의 우아함보다 자기의 ‘ <u>건장한 체격</u> ’을 더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했다.<br>e. ...하인이며 마차며 캐시미어 옷이며 다이아몬드며 <u>레이스 옷가지</u> 등 부족한 것 없이 안겨 주었소.<br>f. ...그 당시 나는 봉봉을 좋아해서 크런치 봉봉을 <u>와작와작</u> 먹다가(야만스러움은 눈감아 주시오)...<br>g. ...‘ <u>몽 앙주</u> ’하고 부르려는 순간, ...(*각주: 프랑스어로 ‘나의 천사’라는 뜻)<br>h. ...중절모를 쓴 머리 하나가 아치 모양으로 된 호텔의 <u>마차 입구</u> 를 지나 갔소. .<br>i. ... 그 사내는 젊은 자작으로 <u>난봉꾼</u> 이었소.<br>j. ...내 앞에서는 ‘ <u>날자다운 장절</u> ’이라면서 뜨겁게 찬사를 보내는 것이 버릇이었으니까... (261-68) |

<표 2>는 로체스터가 사용한 프랑스어의 번역본을 모아놓은 것인데, 앞서 아델의 프랑스어를 분석한 <표 1>과의 가장 큰 차이라면 번역 전략들이 비슷해 졌다는 점이다. <표 1>에서는 절충적 전략을 구사한 번역본이 4편, 목표어 중심 전략이 1편이었던 반면, <표 2>에서는 절충적 전략이 두 편으로, TT2는 일부를 프랑스어 음차 후 괄호 안에 한국어 해석을 남겼고, TT4에서는 일부를 프랑스어 음차 후 각주로 해석을 남겼다. 나머지 3편은 모두 TT1처럼 프랑스어를 없앤 목표어 중심 전략으로 수렴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번역 전략이 동일하여 TT3과 TT5의 번역은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번역 전략 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TT1으로, <표 1>과 <표 2>에서 나타나는 전략의 차이가 극명하다.

<표 1>과 <표 2>에서 나타나는 각 번역본의 번역 전략의 차이는 외국어의 중요성에 대한 번역자의 인식의 차이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1>에 등장하는 아델의 경우 프랑스 출신으로 영어를 거의 할 줄 모른다는 설정이 있으므로

‘사실적 효과’ 차원에서 번역자들은 아델이 프랑스어를 계속 사용하게 하는 것이 작품 전개에서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반면 로체스터는 영국인이기도 하고, 그의 프랑스어가 환기시키는 분위기는 명시적이라기보다는 암시적이다. 따라서 TT2와 TT4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로체스터가 사용하는 프랑스어의 ‘환기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거나 프랑스어를 남기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3.3.3 제인

작품 속에서 제인은 엄격한 기숙학교에서 유년기를 보내며 자수, 피아노 연주, 그림, 프랑스어 등을 배워 숙녀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된다. 이 때 프랑스어는 제인에게 상류사회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제인이 프랑스적인 것에 경도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텍스트 내에서도 제인이 프랑스어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소설의 결론부에 내리는 아델에 대한 평가<sup>5)</sup>에서도 아델의 ‘프랑스적 결함’들이 사라진 것에 만족해하고 있다. ST3은 제인과 로체스터가 저택 내에서 고용인과 피고용인으로 처음 대면하는 장면으로, 제인은 로체스터가 사용한 ‘선물’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cadeau’가 환기시키는 분위기를 자신의 철학으로 바꾸어 대응하고 있다.

you have taken great pains with her: she is not bright, she has no talents; yet in a short time she has made much improvement.’  
 ‘Sir, you have now given me my *cadeau*’; I am obliged to you: it is the meed teachers most covet-praise of their pupils’ progress.’  
 (142-43)

로체스터는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 식솔들과 만나게 되고, 아델은 프랑스어로 로체스터에게 선물을 달라고 조르면서 가정교사 제인을 위한 ‘선물(cadeau)’도 있는지 질문하여 제인을 난처하게 만든다. 이 때 로체스터와 제인에게 ‘선물’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진다. 로체스터에게 ‘선물’은 여자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사치스럽고 화려한 물건이며, 파리에서의 부정한 옛 연인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인은 제인의 훈육방식에 대하여 로체스터가 칭찬하자, 교사로서의 자신의 능력과 성실성에 대한 칭찬이야말로 진정한 ‘선물’이라고 영어로 되받아치는데, 이 때 ‘선물’에 대해서만은 ‘cadeau’라는 프랑스어 단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제인의 발화는 프랑스적인 가치에 대한 제인의 해석으로 볼 수도 있다. 로체스터가 사용하는 ‘cadeau’는 걸치레와 사치를 환기시키지만 제인이 ‘cadeau’를 언급하면서 이 단어는 근면함과 성실함에 대한 보답으로 탈바꿈한다. 위 대화에서 아델, 로체스터, 제인이 사용하는 ‘cadeau’는 동일한 프랑스어 단어로 표기되지만 아델에게는 ‘애정의 표시’, 로체스터에게는 ‘사치’, 제인에게는 ‘근면함에 대한 보답’으로 각각 다른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위 예문에서 밑줄 친 부분의 번역만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아델, 로체스터, 제인이 사용한 프랑스어 ‘cadeau’의 번역 비교

| 구분  | 번역문   |
|-----|---|
| TT1 | 아델: “N'est-ce pas, Monsieur, qu'il y a un <u>cadeau</u> pour Mademoiselle Eyre dans votre petit coffre(아저씨, 그 작은 상자 안에 마드무아젤 에어께 드릴 선물도 들어 있지요)?” ...<br>로체스터: “누가 <u>선물</u> 이야기를 하든?” ... “ <u>선물</u> 을 기대했다, 에어 양? 선물을 좋아하시오?” ...<br>제인: “지금 저에게 ‘ <u>선물</u> ’을 주셨습니다 ... (1권, 209-10) |
| TT2 | 아델: “아저씨, 가져오신 작은 상자 안에 에어 선생님 <u>카드</u> 가 들어있죠, 그렇지요?” ...   |

ST3<sup>6)</sup>

k. As he took the cup from my hand, Adèle, thinking the moment propitious for making a request in my favour, cried out-  
 ‘N'est-ce pas, Monsieur, qu'il y a un cadeau pour Mademoiselle Eyre dans votre petit coffre?’  
 ‘Who talks of cadeaux?’ said he gruffly. ‘Did you expect a present, Miss Eyre? Are you fond of presents?’ ...  
 ‘I hardly know, sir; I have little experience of them ...’  
 ‘Oh, don't fall back on over-modesty! I have examined Adèle, and find

5) “As she grew up, a sound English education corrected in a great measure her French defects; and when she left school, I found in her a pleasing and obliging companion – docile, good-tempered, and well-principled,” (519)  
 6) 밑줄과 이탤릭체는 모두 필자가 표기한 것임.



|           |   |
|-----------|---|
|           | 로체스터: “누가 선물 이야기를 했니?” ... “에어 선생, <u>선물</u> 을 기대했습니까? 선물을 좋아하는 편입니까?” ...<br>제인: “주인님, 방금 제게 ‘카도’를 주셨습니다 ...” (1권, 241-42)   |
| TT4       | 아델: “무슈, 무슈의 작은 상자 속에는 에어 선생님의 <u>선물</u> 도 있나요?” * ...<br>로체스터: “누가 카도**이야기를 꺼냈나? 에어 양, <u>선물</u> 을 기대하고 있었소? 선물을 좋아하오?” ...<br>제인: “그렇다면 방금 저한테 ‘카도’를 주신 겁니다 ...”<br>*N'est-ce pas, Monsieur, qu'il y a un cadeau pour Mademoiselle Eyre dans votre petit coffre?<br>**프랑스어로 ‘선물’이란 뜻 (224-25) |
| TT5<br>7) | 아델: “저 조그만 상자 속에 에어 선생님께 드릴 <u>선물</u> 도 들어 있지요?” ...<br>로체스터: “누가 <u>선물</u> 얘기를 하든?” ... “에어 선생, <u>선물</u> 을 기대하고 있었든가요? <u>선물</u> 을 좋아합니까?” ...<br>제인: “지금 그 말씀이 제겐 좋은 ‘ <u>선물</u> ’이에요 ...” (상권, 219-20)  |

아델, 로체스터, 제인이 각각 한 번씩 사용한 ‘cadeau’를 중심으로 5종의 번역텍스트를 살펴본 결과, 모든 번역본이 해당 맥락에서 ‘cadeau’, 즉 ‘선물’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선 TT1의 경우, 아델이 사용하는 프랑스어를 번역하는 경우에만 적극적으로 외국어 중심 전략을 구사할 뿐 다른 등장인물의 프랑스어는 철저히 목표어 중심 전략으로 번역하고 있다. TT5는 일관되게 목표어 중심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 두 번역본은 제인이 ‘선물’이라고 언급할 때 작은따옴표로 그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 두 번역본은 ‘선물’이라는 핵심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문의 프랑스어를 지웠기 때문에 선물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의미를 프랑스어와 연관 지을 수는 없게 되었다. 반면, TT2는 프랑스 단어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채 음차로 표기하는 외국어 중심 전략이 구사되어 있는데, 프랑스 단어는 드러나지만 ‘카도’가 무엇인지 맥락을 통해서 유추해야 하기 때문에 목표독자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절충적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TT4의 경우, 원문의 프랑스어 문장과 단어를 각주로 처리하면서 제인의 발화는 음차로 처리함으로써, 대화상에서 ‘선물’의 의미의 중요성을 살려줌과 동시에 프랑스적인 어감까지도 독자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7) ‘cadeau’라는 키워드의 번역 전략을 비교한 결과 TT3과 TT5의 결과가 동일하였으므로 지면 관계상 대표로 TT5만 수록하였다.

#### 4. 번역 전략 논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문에 사용된 외국어는 외국어 중심 전략, 목표어 중심 전략, 절충적 전략으로 범주화할 수 있으며 아래의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 외국어의 번역 전략

| 외국어 중심 전략  | 절충적 전략   | 목표어 중심 전략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어 철자</li> <li>• 외국어 음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텍스트 내 설명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어(목표어 번역)</li> <li>- 목표어(외국어 번역)</li> <li>- 수식어구(동격, 형용사절, 분사구문 등)</li> </ul> </li> <li>• 텍스트 외 설명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주 또는 미주</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어로 번역</li> </ul> |

외국어를 전혀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외국어 중심 전략은 『제인 에어』 번역본에서는 찾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번역 전략은 목표 독자층이 텍스트를 해독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용성이 너무 낮아 번역 전략으로 사용되기에는 현실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어 번역만을 제공하는 목표어 중심 전략이 주로 사용된 TT5는 텍스트의 가독성은 높아지는 반면, 작품 내에서 프랑스어의 존재가 불러일으키는 사실적인 효과와 다양한 환기적 효과가 사라지는 손실이 발생한다.

번역본 분석에 의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번역전략은 한국어와 외국어가 병기되는 절충적 전략이며, 이렇게 외국어의 의미를 별도로 설명하는 방식의 번역 방법은 뉴마크(Newmark 1988)가 소개한 노트나 주석을 첨가하는 번역 전략과 유사하다. 그에 의하면 이 전략은 번역에 추가 정보를 삽입하는 것으로, 문화적 정보나 기술적 정보, 또는 언어적 정보를 제공한다고 한다. 해당 정보는 텍스트 내·외에 첨가되는데, 텍스트 내적 첨가는 일종의 수식어를 번역문에 첨가하는 방법(형용사절, 동격, 분사구문, 분류사, 삽입구의 사용 등)과 괄호 안에 넣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TT1, TT2, TT3은 주로 괄호 안에 외국어 혹은 한국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어의 특성상, 동격이나

분사구문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텍스트 외적 첨가로써 각주나 미주 등이 있으며 TT4가 이 부류에 해당된다. 뉴마크는 어떤 정보를 첨가할지는 독자층에 따라 번역자가 선택하지만 표현적 텍스트인 경우에는 텍스트 외부에 추가정보를 넣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정보를 추가할 경우 독자들의 집중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텍스트 내에 삽입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Newmark 1988: 92), 본고에서 논의된 번역본들은 대체로 텍스트 내부에 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충적 전략은 원문에 사용된 외국어의 흔적을 남기는 동시에 그 외국어가 사용된 맥락을 어느 정도 목표독자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 전략은 『제인 에어』의 TT5를 제외한 여러 번역본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경향이기도 하다. 이는 번역자들이 원문에 나타난 외국어의 특수성과 서사적 가치를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다양한 번역 전략들이 등장하는 이유도 작가가 구사한 독특한 언어를 번역에 반영하려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문학 작품에 사용된 언어의 독특함과 문학성을 번역에 반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듯하다. 우선 번역학에서는 오랫동안 지배적 담론이었던 언어적 등가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문화의 특수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반영하는 번역 전략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를 발전시켜왔다(Katan 2009). 이러한 이론적 발전은 원문의 언어적·문화적 특수성을 번역에 반영하려는 태도의 바탕이 되고 있다. 번역가의 입장에서도 예술작품의 심미성을 재현하고자 하는 창작적 욕구와 직업윤리가 존재하므로 원전의 예술성을 기대하는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러한 예술성을 최대한 전달하려고 노력한다.<sup>8)</sup>

원문의 언어적 다양성을 살린 번역에 대한 국내 독자들의 수용성도 차츰 변화하고 있다. 세계화가 심화되는 현대사회는 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타문화와 언어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국내에서는 외국 문화를 거의 실시간으로 접한다. 따라서 국내 번역 시장은 절충적 전략이 구사된 다양한 방식의 번역에 대하여 점점 관대해질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본고의 연구 대상인 다언어 사용의 관점에서, 창래 리(Chang-rae Lee)의 『네이티브

스피커』(Native Speaker 1995)가 다언어적 요소를 살려 다출판사와 번역가에 의하여 재출간된 사례나(이형진 2011), 칼레드 호세이니(Khaled Hosseini)의 『천 개의 찬란한 태양』(A Thousand Splendid Suns 2007)이 원문의 다리어(dari)가 보존되는 식으로 재번역된 사례, 또는 외국문화 관련 어휘가 음차로만 번역된 칙릿(Chick-Lit) 문학의 국내 성공 사례(Cho 2008) 등은 특수한 사례이긴 하지만, 원문에 나타난 다언어적 요소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번역 방식에 국내 출판계가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있으며, 이국적인 번역을 수용할 독자층도 존재한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향후 언어적 다양성이 보존되는 다양한 번역 전략의 추구는 계속 이어지리라고 전망한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문학 텍스트에 나타나는 다언어적 요소의 문학적 기능과 번역 전략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우선 다언어 문학의 형식적 분류와 기능적 분류를 소개하였다(Rossich 2018). 다언어 문학의 형식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한 텍스트에서 다양한 언어가 번갈아 가며 사용되는 ‘언어교차’, 둘째, 한 텍스트의 내용을 둘 또는 세 언어로 읽을 수 있게 만든 ‘언어혼재’, 셋째는 기존의 언어를 변형시키는 ‘언어혼합’으로, 현대의 다언어 문학은 대개 첫 번째 형식을 가리킨다. 이 유형의 텍스트에 등장하는 외국어의 문학적 효과는 사실적 효과, 환기적 효과, 서사적 효과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다언어 문학에서의 외국어 번역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사례분석 대상으로는 다언어적 요소가 풍부한 『제인 에어』와 번역본 5종을 선정하였다. 작품에서 프랑스어는 당대 영국 상류사회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작품의 사실적 효과를 높이는 한편, 영국의 빅토리아식 절제와 순응을 강조하는 가치관과 대조되는 방종과 무절제를 연상시키는 환기적 효과도 일으킨다. 이러한 문학적 장치는 제인의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만의 확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5종의 번역본은 본문의 외국어를 최대한 반영하는 외국어 중심 전략, 텍스트 내부나 외부에 설명을 삽입하는 절충적 전략, 그리고 외국어의 흔적을 제거

8) 일례로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2000) 말미에는 몇 편의 후기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 후기들은 역자가 개정판을 낼 때마다 그 사정을 기록한 것으로, 후기들을 통해 보다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하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하는 목표어 중심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독자 입장에서 해독이 불가능한 외국어 중심 전략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번역본에서 절충적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는 번역자들이 외국어의 문학적 기능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목표어 중심 전략을 구사한 번역본도 있었는데, 이 경우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외국어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했던 은유나 메시지는 약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번역자의 창조적 개입을 추동하는 학계의 이론적 발전과, 세계화로 인한 다문화 및 다언어의 노출 심화라는 배경에 힘입어, 향후 목표어 중심 전략보다는 원문의 다언어적 속성을 반영하는 절충적 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번역 시도와 연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문헌

김기영 (2016) 「탈식민 문학의 언어 혼종성과 그에 대한 번역 전략 논의」, 『번역학연구』 17(2): 7-34.

박종성 (2009) 「지배 질서 비판과 포섭 사이: 제인 에어의 양가성 연구」, 『근대영미소설학회』 16(1): 87-110.

선영아 (2015) 「다언어 글쓰기와 번역의 문제」, 『인문논총』, 72(1), 293-324.

이상빈 (2014) 「문화번역의 텍스트적 재현과 ‘번역’: 이창래의 *Native Speaker* 와 그 번역본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8(4): 119-140.

이윤기 (2000) 『장미의 이름 (하)』 서울: 열린책들. (Umberto Eco (1983) *The Name of the Rose*, San Diego: Harcour Brace Jovanovich Publishers.)

이형진 (2011) 「이창래의 *Native Speaker*의 한글번역본 비교연구」, 『세계문화비교연구』 36: 131-165.

한미애와 조의연 (2017) 「혼종적 정체성과 혼종적 언어 번역하기: Memories of My Ghost Brother와 Fugitive Visions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8(3): 227-249.

Aronin, Larissa and David Singleton (2012) *Multilingualis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Cenz, Jasone (2013) ‘Defining Multilingualism’,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33: 3-18.

Cho, Seung Eun (2008) ‘The Translation and Appropriation of Chick Lit in Korea’, 『영미연구』 18: 47-77.

Delabastita, Dirk and Rainier Grutman (2005) ‘Fictional Representaion of Multilingualism and Translation’, *Linguistica Antverpiensia* NS 4: 11-35.

Eells, Emily (2013) ‘The French Aire in Jane Eyre’, *Cahiers victoriens et édouardiens* 78: 1-15. Available at <https://journals.openedition.org/cve/839>.

Garner-Chloros, Penelope and Daniel Weston (2015) ‘Code-switching and Multilingualism in Literature’, *Language and Literature* 24(3): 182-193.

Grutman, Rainier (2006) ‘Refraction and Recognition: Literary Multilingualism in Translation’, *Target* 18(1): 17-47.

Grutman, Rainier (2009) ‘Multilingualism’, in Mona Baker and Gabriela Sldanha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second edition, New York: Routledge, 182-185.

Katan, David (2009) ‘Cultural Translation’, in Mona Baker and Gabriela Sldanha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second edition, New York: Routledge, 67-73.

Kemp, Charlotte (2009) ‘Defining Multilingualism’, in Larissa Aronin and Britta Hufeisen (eds) *The Exploration of Multilingualism*, Amsterdam: John Benjamins, 11-26.

Lefevere, André (1992) *Translating Literature: Practice and Theory in a Comparative Literature Context*, New York: Modern Language Association, 29-31.

Meylaerts, Reine (2006) ‘Heterolingualism in/and Translation’, *Target* 18(1): 1-15.

Meylaerts, Reine (2010) ‘Multilingualism and Translation’, in Yves Gambier and Luc van Doorsla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 1*,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227-230.

- Meylaerts, Reine and Adrianan Serban (2014) 'Introduction: Multilingualism at the Cinema and on Stage: A Translation Perspective', *Linguistica Antverpiensia* 13: 1-13.
- Newmark, Peter (1988) *A Textbook of Translation*, Hempstead: Prentice-Hall International.
- Reiss, Katharina (2000) *Translation Criticism – The potentials & Limitations*, Manchester: St. Jerome.
- Rossich, Albert (2018) 'An Overview of Literary Multilingualism', *Comparative Critical Studies* 15(1): 47-67.
- Sridhar, Kamal K. (1996) 'Societal Multilingualism', in Sandra Lee McKay and Nancy H. Hornberger (eds) *Sociolinguistics and Languages Teaching*, New York: Cambridge, 47-70.

<분석텍스트>

- ST: Brontë, Charlotte (1847/2006) *Jane Eyre: Edited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Stevie Davies*, Suffolk: Penguin Classics.
- TT1: 나선숙 옮김 (2007) 『제인 에어』, 서울: 대교베텔스만(주).
- TT2: 류경희 옮김 (2010) 『제인 에어』, 서울: 임프린트 펍킨클래식 코리아.
- TT3: 김성구 옮김 (1994) 『제인 에어』, 서울: 청목사.
- TT4: 햇살과 나무꾼 옮김 (2014) 『제인 에어』, 서울:(주)시공사.
- TT5: 유종호 옮김 (2004) 『제인 에어』, 서울: 민음사.

[Abstract]

**English-Korean Translation of Literary Multilingualism:  
Focus on French expressions in *Jane Eyre***

Won, Eun-ha · Chin, Sil-o  
(Kyungwoon University · Sejong University)

This paper deals with literary multilingualism, focusing on foreign words in literary works and discussing how those foreign words should be translated. The effects of literary multilingualism are largely divided into realistic effects, evocative effects, and narrative effects. The French used in *Jane Eyre* realistically depicts the upper-class society of the time, confronting the British values of moderation and conformity with the French values of intemperance and indulgence. These effects contribute to the plot development of Jane growing up as an independent, self-reliant woman. Five Korean translations of the novel show various strategies, and those strategies can be narrowed down to three types: first, leaving foreign words as is in the target texts; second, adding an explanation or translation of the foreign words somewhere in the target texts; and third, translating foreign words into the target language. Most of the five target texts have actively added notes or glosses, considering the literary effects of the French words. In some translations, however, the French words were eliminated, and thus the rhetoric effects from the foreign words have been weakened. It can be concluded that most translators were aware of the importance that the foreign words be recognized. It is expected that translators be increasingly willing to reflect the literary effects of foreign words onto a target text, along with theoretical development in favor of a translator's intervention for maintaining the original effects and target readers' openness to the multicultural environment due to globalization.

▶ Key Words: literary multilingualism, foreign words, Jane Eyre, realistic effect, evocative effect, translation strategy

▶ 주제어: 다언어 문학, 외국어 표현, 제인에어, 사실적 효과, 환기적 효과, 번역 전략

원은하

경운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조교수

boi999@hanmail.net

관심분야: 문학번역, 번역교육, 번역학, 언어학

진실로

세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초빙교수

silochin@sejong.ac.kr

관심분야: 문학번역, 번역교육, 번역학

논문투고일: 2020년 5월 5일

심사완료일: 2020년 5월 21일

게재확정일: 2020년 5월 25일